

2020 인권 분야별 이슈

노인 / 여성 / 장애인 / 아동 / 노동자



노인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노인들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환경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banking, 어플 예매 시스템, 무인주문 시스템(키오스크)등은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고령층에게는 세상과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디지털소외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정보격차로 이어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이유로 배제당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 입니다.

여성

끝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 피해여성들 중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성착취 수법이 악랄해 국민적 공분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본 것으로, 피해여성들은 범죄 결과물이 언제 다시 자신의 삶에 나타날 지 몰라 두려움에 떨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의 운영자는 한국의 20대 남성이었으며, 그는 겨우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몰카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대표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다움을 따지기보다 가해자의 비열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눈 '안내견'



4월, 시각장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안내견의 국회 출입이 논란이 됐습니다.

2004년 당시,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가 출입을 거부하였지만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2020년, 국회는 마침내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1월, 한 대형마트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며 고함을 치는 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40조에 따라 장애인 안내견 및 훈련사는 공공장소의 출입이 거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입니다. 출입여부 검토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제도적 배려가 아닌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동

훈육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



9살 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를 당하던 어린 아이가 베란다를 통해 지붕을 가로질러 탈출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모는 모두 ‘훈육’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도 주변의 감시가 중요합니다. 학대가 의심 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비노동자를 향한 갑질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입주민은 경비원을 ‘머슴’이라 지칭하며 온갖 폭언과 폭행,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다거나 짐꾼으로 부리면서 90도 인사요구 등의 입주민 갑질은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비인격적인 대우에도 보복성 해고가 두려워 경비 노동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반복되는 갑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된 고용환경 보장일 것입니다.

이슈 관련 법안

1. N번방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장애인 복지법 40조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한 동일하다.

3. 아동학대 의심 ‘즉시분리’ 제도 도입 및 ‘징계권’ 조항 폐지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된다. 훈육을 빙자한 체벌을 막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도 민법에서 폐지되었다.

4. 경비원 상대 갑질 방지 법안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갑질 방지 규정을 추가하였다.

“ 이슈 관련 기념일

3.8 여성의 날

4.20 장애인의 날

5.1 근로자의 날

10.2 노인의 날

11.19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인권침해사건 및 인권경영에 대한 의견은 아래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포털 게시판

인권침해 상담&신고

이메일

humanrights@dime.or.kr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센터

담당자 내선번호

1183

DIME